



시인의 마음가짐_ 하상규 시창작

시인이 되려면 _ 마음가짐 13~ 18

- 진실한 글.

훌륭한 표현기술도

훌륭한 사상과 인격과 정신이 갖추어졌을 때 발휘가 된다. 13

- 순수해져라. 단순해져라.

어린이처럼 맑고 깨끗하며 단순한 사람이 되어 시가 보이고 써질 것이다. 14

- 겸손한 마음,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, 사물을 아름답게 보는 눈,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.

신과 사람과 사물에 대한

경이감, 경외감 이 있어야 진리와 미를 찾을 수 있다. 감동을 줄 수 있다. ↔ 사람과 사물을 내려다보는 교만하고 거만한 눈 X

- 사색하라, 관찰하라 _ 다상량

깊고 넓은 생각을 많이 한다. 사물을 예사롭게 보지 말고, 작은 돌멩이 하나, 살랑거리는 바람결에도 의미를 찾아라. 아름다움을 찾아라.

- 체험하라.

책을 많이 읽어라. 시를 많이 읽어라.

다독, 다작, 다상량 + 다양한 경험

- 통찰력을 길러라

어떻게 보느냐, 어느정도로 보느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.

시인에게

형상화의 능력은 중요하다.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세인들과 달리 사물을 인식하는 눈 = 통찰력이 요구된다. **지식 + 경험 = 통찰력 ↑**

- 시적사고, 영감메모

메모가 어려우면 녹음이라도 해서 영감을 잃지 마라.

- **공부하라. 지도를 받아라**

시인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. 작가 공통점 3년이상 공부했고, 현업에서도 계속 공부한다.

공부하지 않고 시인이 된 사람은 없다. 공부를 해야 내가 자라고 시가 자란다.

서두르지 말고 착실하게 공부해라. 18

□ 아.. 정말 시이의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세팅해야 하겠다. 앞으로 더 많이 사색해야 겠다. 직장에서 일할때 멍때림의 시간이 많았다. 요즘 나에게 질문도 많이 하지 않았다. 시적사고, 다상량, 형상화의 능력, 이런 키워드 단어들이 내 허파를 찌른다. 출근 하기전, 두 시간 정도 빨리 일어나서 뇌에 시동을 걸고 출근하자. 그래야 발동이 걸려서 직장에서 계속 사고 하면서 일할 수 있다. 니가 통합병동 가서 몸 움직이면서 일하는 건 생각하려고 이일을 선택했음을 잊지 말자. 에릭호퍼처럼. 그리고 사색하려면 내 에너지를 직장 사람들에게 빨리면 안된다.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, 텃새 부려도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 딱 끄고 내 할일만 하고, 전부 사색에 올인하자. 창작, 문예창작,, 작가, 강연자. 글쓰기 강사. 하나님, 시각장애인., 내가 읽고 쓰는 삶에 올인한 이유, 동기부여. 전부 사색하고 생각하자. 생각한대로 살게 된다. 인간은., 이미 내 안에 작가가 살고 있다. 서채은은 이미 작가야.